

“차이니스 월 규제 전면개편”... IT 기업 업무위탁 ‘OK’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금융투자회사 활성화 간담회

업무위탁 보고 사전→사후 전환
“규제 개선으로 대형·중·소형사
전략적 제휴 활성화·특성화 기대”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IT 기업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던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11개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차이니스 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으로 전환”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차이니스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하지만 한국의 차이니스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스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

로 작용하는 차이니스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업 단위 규제 정보 단위 규제 전환 ▲차이니스 월 규제 형식 개선 ▲사의 차이니스 월 규제 합리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등 4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보 단위별 규제 전환을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스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차이니스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의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할 계획이다.

차이니스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특히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할 계획이다.

사의 차이니스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하고,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복안이다.

차이니스 월 규제 정비에 맞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한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투업계, IT기업에 업무 위탁 가능”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고, 전문성 있는 영역으로 특화하는 모습도 진행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돼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차이니스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은 자본시장에서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였다”며 “이같은 규제를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체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미래지향적·선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금융 확대를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금융투자업계 회원과 함께 기존 데스크 포스(TF)를 개편해 운영하고 내부통제 혁신을 통해 실현방안을 구체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어르신들에 카네이션 전달

KB증권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이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효(孝) 드림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KB증권은 매년 가정의 달에 소외된 주변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孝 드림 카네이션’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와 올해 5번째 실시하는 KB증권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이날 KB증권 임직원들은 서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께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떡을 전했다. /손엄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스톡봇 체험 프로모션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자사 홈페이지에 각종 투자 서비스들이 제휴, 입점되어있는 로보스토어의 오픈 2주년 기념 체험 이벤트 3탄으로 스톡봇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로보스토어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종목추천과 매매신호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들이 입점 되어있다. 각각의 서비스들은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정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시장안정 vs 공급과잉... ‘수요자 혼란’ 가중

고양·부천 등에 11만가구 분양
“신도시 공급과 무관 청약 고려를”

〈5월 이후 연내 서울 주요 분양예정단지 현황〉

분양시기	위치	사업(단지)명	총가구(일반분양)	전용면적(m²)	시공사
5월	강남구 삼성동 19-1,4번지(상아2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레시	679(115)	59~149	삼성물산
5월	송파구 위례신도시 A1-2블록	호박씨미 송파 I	689(689)	108	호반건설
5월	중랑구 양원지구 C1블록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218(218)	84	원건설
6월	서초구 서초동 1335(무지개아파트)	서초그랑자이	1,446(167)	43~119	GS건설
7월	영등포구 신길동 145-74(신길3구역)	서울신길3구역	799(368)	59~121	포스코건설
9월	은평구 증산동 213-20일원(증산2구역)	증산2구역	1,386(461)	38~84	GS건설
9월	강동구 둔촌동 170-1(둔촌주공)	둔촌주공 재건축	12,032(5,056)	29~165	현대·대우·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11월	강남구 개포동 660-1(개포주공1단지)	개포1단지	6,642(1,216)	59~179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상반기	동작구 사당동 41-17일원(사당3구역)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514(153)	41~106	대우건설
상반기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SKY-L65	1,425(1,253)	84~117	롯데건설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946-8일원(방배5구역)	방배5구역 재건축	3,080(1,686)	59~164	현대건설

*분양시기 및 가구수, 전용면적은 시공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료=부동산인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7월 2020~2022년에 서울 근교 신도시 2곳(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5만8000가구, 도심 국공유지 및 유휴 군부지 등에 5만2000가구 등 11만가구를 공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 기대감과 공급 과잉 우려 등 두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지역 실수요자 이탈로 분양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서울 수요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신도시 공급을 기다려야할 것인지, 올해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할 지를 놓고 혼란스런 모습

이다. 특히 5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만 2만352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분양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1만6000여가구까지 공급됐던 분양물량은 작년에 크게 줄었다. 2017년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지난해 계획 물량이 대거 연기되기도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팀장은 9일 “최근

서울 분양시장은 무순위 청약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주변 신도시 공급과 무관하게 청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재건축, 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과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등의 분양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분양단지인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679가구로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레시’

를 이달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열고 짓는 ‘서초그랑자이’ 1446가구를 6월 분양한다.

하반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강동구 둔촌동 위치한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1만2000여가구로 짓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단일 규모로는 서울 최대 규모로 9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공원 등이 가깝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화건설, 기업 공식 블로그 전면 개편

한화건설이 소통 및 기업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던 기업 공식 블로그를 9일 전면 개편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개편을 통해 10만가구의 아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 등 국내외 건설 실적과 주택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새롭게 오픈한 공식 블로그는 심플한 디자인과 가독성

을 살린 레이아웃에 초점을 맞췄으며 네이버 기반의 블로그로 채널을 이전해 콘텐츠 노출과 검색을 쉽게 했다.

세부 콘텐츠로는 건설학개론, 건축탐방, 부동산 상식, 리빙·인테리어, JOB연구소, 한화건설 뉴스 등으로 구성해 회사 관련 소식은 물론 건설,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담고 했다.

/이규성 기자



>> 1면 ‘판 커지는 증권가...’서 계속

신한금융투자는 9~10일 신한금융사회를 거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초대형 IB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3조3641억원이다.

발행어음 사업이 초대형IB의 핵심인 만큼 신한금융투자 또한 초대형IB로 진입하게 되면 발행어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